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담당 :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 02-735-7061, hjk2722@kfem.or.kr)
 제목 [보도자료] 해양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날짜 2018. 9. 4.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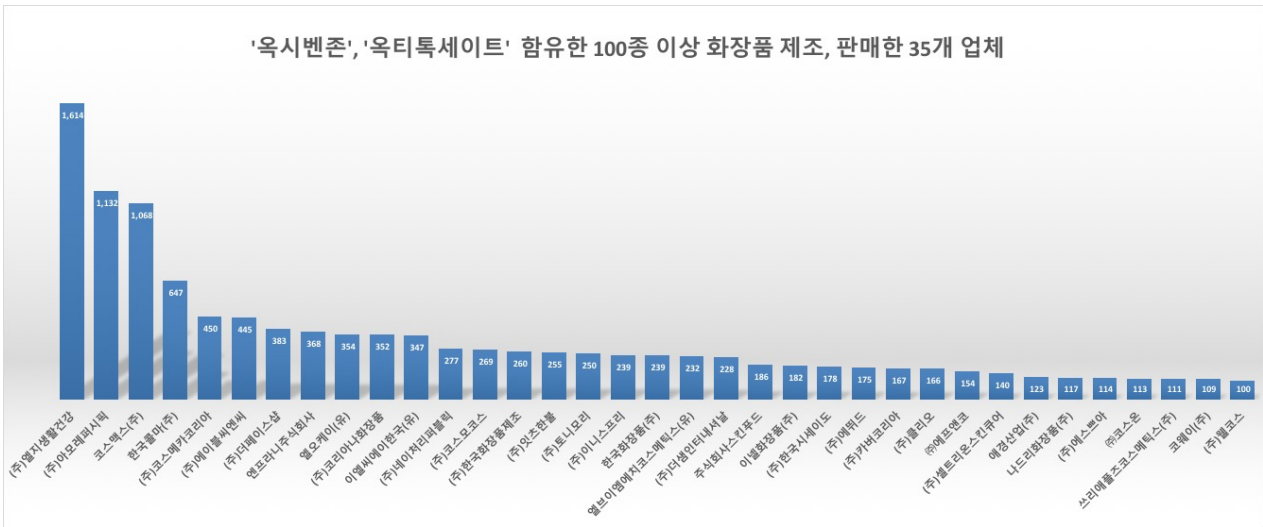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 2곳만 의지 밝혀 환경운동연합,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제품명과 업체명 공개

○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2만 2천여 종이 넘는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에 해당 성분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35곳 중 단 3곳만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웹페이지([시선.net](http://www.siseon.net))를 통해 해당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과 제조판매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기업, 정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xy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주), (주)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주)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주)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세부자료 별도첨부)



〈표1.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 해양생태계 파괴 자외선 차단 원료 물질 사용 중단과 해양생태계 보호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셀트리온스킨케어는 “자사 140개 품목 중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주)의 경우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 해당 원료 물질에 대한 국내 화장품의 환경 규제도 미흡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화장품의 자외선차단제로 옥시벤존의 함량을 5퍼센트로 규정하고, 옥티녹세이트는 7.5퍼센트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생태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해 주고 있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대국민 소식지인 ‘컨슈머핫라인’을 통해 “물놀이 할 때 30분-1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라”고 물속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 페이지(시선.net)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별첨자료1.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제조사	자외선 차단 성분 함유한 화장품 종류(수)	동참 여부
㈜엘지생활건강	1,614	
㈜아모레퍼시픽	1,132	
코스맥스㈜	1,068	
한국콜마㈜	647	
㈜코스메카코리아	450	
㈜에이블씨엔씨	445	
㈜더페이스샵	383	
엔프라니㈜	368	
엘오케이(유)	354	
㈜코리아나화장품	352	
이엘씨에이한국(유)	347	
㈜네이처리퍼블릭	277	
㈜코스모코스	269	
㈜한국화장품제조	260	
㈜잇츠한불	255	
㈜토니모리	250	
㈜이니스프리	239	
한국화장품㈜	239	동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232	
㈜더샘인터내셔널	228	
㈜스킨푸드	186	
이넬화장품㈜	182	
㈜한국시세이도	178	
㈜에뛰드	175	
㈜카버코리아	167	
㈜클리오	166	
㈜에프앤코	154	
㈜셀트리온스킨케어	140	동참
애경산업㈜	123	
나드리화장품㈜	117	
㈜에스쁘아	114	
㈜코스온	113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	111	
코웨이㈜	109	
㈜웰코스	100	

〈별첨자료2. 환경운동연합은 시선 온라인 페이지(시선.net) 운영 방법〉

